

복암리 고분전시관 곳곳 균열 붕괴 위험

개관 이후 3년간 균열 계속 외벽 타고 지붕까지 이어져 물길 있는 약한 지반에 건립 정밀 안전진단 서둘러야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고분전시관의 균열이 개관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균열이 전시관 고분 밑을 관통해 사방 40여m 바닥을 가로질러 좌우 벽을 타고 지붕까지 이어지고 있어 자칫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주복암리 고분전시관은 국내 유일의 복합묘제인 복암리고분군(국가사적 제 404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분군 중 가장 큰 3호분을 실물 크기로 재현했다.

다시면 복암리일원부지 4만2211㎡에 국립비와 시비 등 총 97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 4월 개관한 고분전시관은 개관 전부터 균열 등으로 부실공사 의혹 <광주일보 2016년 3월24일자 보도>이 제기됐었다.

고분전시관은 개관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균열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건물 벽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분전시관의 좌우 벽은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이어지는 균열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을 위탁 운영하는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영산강문

화연구센터는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며 방치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고분전시관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분전시관은 균열 논란에 앞서 전시관 부지선정을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전시관 부지가 복암리고분군에서 400여 m 떨어진 고분이 보이지 않는 곳이고, 마을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다.

이 뿐만 아니라 당초 설계도에는 전시관을 현실감 있게 지하 8m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과정에서 물이 나와 설계변경을 통해 지상으로 바뀌 건축할 정도로 지반이 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관이 위치한 광동마을 주민들은 "새양골 저수지 물길이 돌아가는 논바닥에 전시관을 지었다"며 "전시관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모래 위에 성을 쌓아놓은 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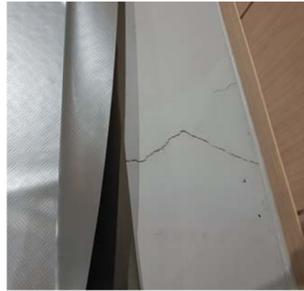
또 건축학 이론에 따르면 노출콘크리트 공법은 그 자체가 마감재 역할을 하고 비나 눈, 습도 등 혹독한 환경에 직접 노출됨에 따라 시공결함으로 인한 균열이 크고 잔금 등이 많아지는 등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나주시 담당자와 위탁 운영을 하는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벽에 균열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건축 전문가에 조언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겠다"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보수공사를 마친곳에 바닥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전시관 바닥을 덮어 놓은 깔개를 찢히자 벽으로 이어지는 균열이 나타났다.



전시관 뒤쪽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이다.

영산포 속성 홍어와 포천 막걸리의 만남

도시재생 교류 협약 체결...지역축제·행사 때 공급 판매



코골 알싸한 남도의 별미 '영산포 속성 홍어'와 탁주의 본가 '포천 막걸리'가 도시재생 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영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와 경기 포천시 신용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가 영산동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에서 위광환 나주시장을 비롯한 이계삼 포천부시장, 김민주 영산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장, 양호식 포천시 신용동 도시재생협의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지역 특산품인 영산포 속성홍어와 포천 막걸리를 지역 축제나 행사 현장에 공급·판매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위광환 나주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이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상호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교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영산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김민주 회장은 "속성 홍어와 막걸리 가 합해진 흥취처럼 나주 영산동과 포천 신용동의 좋은 공감을 기대한다"며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지역 특산품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소방서, 지역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나주소방서는 지역안전지킴이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했다.

나주소방서는 지난 4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38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임명된 신규 대원들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현장보조 활동과 화재예방 홍보·특별경계 활동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게 된

다. 김도연 나주소방서장은 "새 소방가족이 된 신규대원의 임용을 축하하고 지역 안전수호자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며 "대원들 간에 일치단결해 시민 봉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추적 봉사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 '갈등 민원 해결사' 뜬다...시민 배심원 등 59명 위촉

나주시가 다수의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건 '시민 민원 배심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 민원배심원단 구성을 위해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 민원배심원제는 법률 분야 등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해가 상충되는 민원에 대해 토론·심의과정을 거쳐, 평결하는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월1일 관련 조례에 이어 지난 4월8일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

고 시민 민원배심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공개·추천을 통해 만19세 이상 시민 50명을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선발했다.

예비배심원 50명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나주시가 안전을 상정할 때 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20명만 갈등 조정에 참여시키게 된다.

시민배심원제를 총괄하고 운영할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법조계 전문가 2명을 위촉했다.

안전 상정을 결정할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전공 분야별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에 한해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배심원제는 '안전 심의 신청→시민 배심 안전 상정 여부 결정→판정관·이해당사자 통보→시민배심 안전 상정→시민배

심원단 구성→시민배심 개정 및 평결·공표→평결 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전 신청은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민원인 또는 나주시 각 부서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의대상에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수사·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 간의 통상적 민사 분쟁,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사안은 제외된다. 시민민원배심원제 신청·문의는 나주시청 시민봉사과(061-339-8731)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인 시민민원배심원제는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지역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심 결정을 위한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맞아

오늘 '역사골든벨' 퀴즈대회

나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줄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나주시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12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제1회 도전! 역사골든벨을 울려라!'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독립운동의 의의와 전개 과정을 알리고, 나주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역사골든벨'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퀴즈대회에는 500여명의 학생이 당일 참가해 예선과 본선을 치른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대한의사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의료진 | 최범재 김영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